

고은 불교 대하소설

네 사람의 태풍

이 책 그곳에는 인담 우녀 과현 수원의 네 사람이 남게 되었다. 수원이 급환(急變)의 발작과도 같이 무욕도 도량의 한 현상을 신랄하게 매도한 직후 역시 그런 발작과도 같이 떠나 버린 충격은 남은 네사람에게 민만치 않은 것이었다.

우녀가 이런 때 막힌 불교를 떠러는듯이 한마디 말을 꺼냈다.

"수원스님이 떠난 것이 곧 우리 공부에 대한 더 없는 경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세 사람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우녀도 더이상 말을 할 마음이 없었다.

아무리 신랄스러운 경지를 터득한 눈빛 형형한 우녀일지라도 이제 수원이 한바탕 뒤집어놓은 무욕도의 기운을 그녀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였다.

인담의 입이 열린 것은 그러한 우녀에의 대답 때문이 아니라 할부도 내릴 수도 없는 것 같은 한숨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런 한숨조차도 주먹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침 가을 들어 무번제의 태풍이 불어닥쳤다. 가을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서 가

다른 규모였다. 끝내 비구너처소의 정사가 송두리채 무너져버린 것이다. 우녀가 그런 무너진 갈대지붕 밑에서 장대에 흠뻑 젖은채 살아나온 것이 다행이었다.

지난번 지붕이 벗겨진 큰 정사는 그뒤 단단히 대비한 나머지 자못 한쪽만 떨어져 나갔다.

간혹 이 지경이니 그 건물 안에 든 곡식이나 살림살이들도 많이 여기저기 쫓겨서 갔다.

네 사람들도 아무리 비바람을 가리기에 급급한 바 있었으나 대번에 일몰이나 다름 바 없이 되어 한기에 소름이 돋아야 하였다.

"수원의 말이 맞기도 하지... 어디 지옥이 별도로 차라져 있었는가. 바로 이런 비바람속이 몰자욱 바람자욱 아닌가."

이번 태풍의 비바람은 거의 쉬는 일없이 꼬박 열흘이나 닳았다. 어디에 불쏘시개에 불을 당길 곳이 있지 않아서 곡식을 물어 담갔다가 생식으로 끼니를 때울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네 사람의 입은 생살이나 잠곡을 씹는 일 밖에는 서로 말을 주고 받

같았다.

1천2백공인(公案)이아발로 게 짓는 소리에도 따를 수 없는 소리로 별레소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잡한 소리가 들리니 대번에 부르짖는 조동종(曹洞宗)의 기개가 이런 곳에 건너지 못할 것 같았다.

다만 이곳의 그것은 오로지 입을 다문 가운데 스스로의 비추어보는 절대(絶對)의 심성을 묵(默)으로 하고 그 절대의 심성이 빛나는 것을 조(照)로 하는데서 바다 가운데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어야 하였다.

그것이 권자의 묵조록(默照錄)에도 말하

켜졌다.

오직 입을 꼭 다문 우수로 지내는 것이었다. 그렇진대 수원의 공부하는 것도 이런 우수 속의 한 응고집이 아닌지 모른다.

이런 막다른 상황으로 10여일을 보낸 뒤 태풍의 괴리는 성에서 가장 오래된 뒷백년 자리 은행나무 아래를 돌리며 뿌리째 쓰러뜨리고 내려졌다.

수원이 잘 들어맞지 않는 문책을 탁 열고 밖으로 나왔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았다.

"괴로움이 솟제 거짓이니 이제 즐거움도 거짓일 밖에" 문책을 탁 열고 밖으로 나온 수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마디 했다

그러므로 증상은 진실로 제도할 것이 없다.

파도마에 휘둘러진 몸 하나로 대결하는 그 정신의 싸움이기도 했던 사실은 짐작도 할 수 없는 참찬이었다.

우녀와 과현이 꼬들꼬들 달 마른 웃음 입은채로 와서 그동안 벽으로만 돌아있었던 수원의 정면을 대하였다. 서로 빙그레 웃음이 피어날 수 있었다.

"비바람속에서 짐 지시느라고 욱보셨지요"라고 수원이 말을 꺼냈다.

이렇게 해서 무욕도에 오랜만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담의 일이 활발해졌다. 이번의 태풍에 의해서 수원이 떠난 직후의 그 충격이 더 큰 충격으로 때워져서인지 무욕도는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일상적이라고는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의 살림살이는 처참한 피해로 말미암아 어떤 것부터 복구하고 수리해 나갈지 선뜻 엄두도 나지 않았다.

먼저 잔잔한 바다 덕택으로 피해를 손보아 타고 불에 발을 디디는 일이 다급하였다. 그동안 물 속에서 건너오던 포구의 사람들도 금급한 것이었다.

수원과 과현이 때를 자어갔다. 남은 배의 수선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단단히 매어둔 채였다.

서산과 안연도 그리고 결성 해안일대와 내포지방의 태풍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서산의 임철지 집을



꼬박 열흘간 계속된 태풍의 비바람속에 네사람은 한기를 느끼며 생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을 곡식의 수확을 앞둔 중요한 자연부리의 정서가 있을 리 없다.

소나무숲에 이어진 잡목림의 여기저기에 아직 풀지 않은 산수유열매가 무감각하게 달려있고 송이버섯이 소나무숲의 땅에서 솟아나왔을 뿐이었다. 모기는 이미 그 기 빠는데 이골이 난 입이 비물어졌거나 아예 맥을 못추었고 잡지라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허물어 떨어졌다.

이런 섬의 가을이지만 하늘이 마치 백년 외수라도 더 깊어버린 듯이 탁 트여 온통 울음으로 가득차 있는 푸르름이어서 오로지 그것만이 가을의 절경이었다.

그런데 봄의 꽃이 꽃샘바람이 있어 꽃을 생으로 지게하는 것처럼 가을하늘도 태풍으로 하여금 그 명목을 없애버리는 것인가.

첫번째 태풍이 와서 섬의 갈대정사 지붕 따위가 흘러떨어 벗겨져버린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저쪽 후미진 선착장의 내배 두 척과 때때 한 척이 물러나 바다 복판으로 떠내려가 있는 것을 수원 수일이 해염 처가서 볼들어 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를 중의 수일이 배 한척을 타고 이곳을 떠난 뒤 태풍이 불어닥쳤다. 두 번째였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앞서의 그것과는 전

을 여지가 없었다. 마치 서로 격렬하게 다툰 뒤같은 입을 꼭 다물고 그 비바람 속의 엄청난 자연의 폭력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 낱물을 구분하는 처소가 없어서 그런대로 비바람을 어느 정도 가림만한 큰 정사에서 세 날자와 한 여자가 함께 지내야 하였다.

이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만이 으뜸의 일이었다. 누가 무욕도의 자랑스러운 묵조선(默照禪)에 몰입했는가. 인담도 우녀도 공부를 놓았다.

오하의 수원 한 사람이 수일이 떠난 뒤의 비장한 각오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는 외만 공부에 하루하루를 마치고 있었다.

일체의 사욕(私慾)과 분별을 끊고 묵연히 선장에 들어감으로써 심성(心性) 그 자체에 견착(契着)되어 실로 행한할 수 없는 묘용(妙用)에 이르러는 묵조선(默照禪) 송나라 권지(潛子)의 가풍이자 그 가풍을 유난히 행한 것도 아닌 이곳의 한줄기 선풍이었다.

대해(大海)가 묵조선(默照禪)이라고 맹렬하게 공박한 이 권지의 묵조선은 가혹이나 간화선(看話禪)으로 체신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의 산공과는 달리 이렇게 여기저기 드물게 피어난 여름밤의 달맞이꽃과도

는 '연꽃 피는 경지(蓮華開)'인가.

하지만 이 섬의 비바람속에서야 어디에 꽃이 피겠는가. 수원이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다른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한 귀퉁이 지붕을 복구하려고 입안에 스퍼드는 빗물을 내뱉을 겨를도 없었다.

도도 더이상의 위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력으로 바위바람을 내리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파도소리야말로 이 무욕도 하나쯤은 자취없이 삼켜버릴 것 같았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다. 우녀들의 처소에 두었던 곡식도 약간만 건졌을 뿐 그 대부분은 파도가 덮쳐서 휩쓸어 갔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인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네 사람이 대생 생식으로나마 목숨을 부지할지 모르는 격정도 차츰

바닷바람이 어느때로 돌아가서 그의 앞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다.

괴로움이 솟제 거짓이니 이제 즐거움도 거짓일 밖에

라고 그는 한 마디 말이 그 자신도 모르게 나왔다. 그것은 말이보다 입안에 담겨있던 미적지근한 물은 타액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은 고대 당나라 백가이(白居易)의 팔점계(八漸階)의 말이 되는 '사(捨) 함묵이 읊은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뜻 괴로움을 다 구제하고는 대자비도 버린다. 괴로움이 함이 아니라면 자비인을 어찌 거짓이 아니라

한하였다. 그 집 역시 마을 전체의 수재에 큰 부담이 되어 참고가 비어야 하였다.

그곳에서 들은 바로는 이런 호서 서부의 수재와는 달리 강원도 황성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그 불길이 크게 번지다가 비 때문에 불길이 잡혔고 경기도 광주 앞대의 봉수대가 있는 산들도 잇달아 화산으로 폭발해서 그 불기둥이 며칠동안 하늘을 뿔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임철지 셋째부인의 어린 딸이 빨았던 말이 아이에게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수원이 그 아이를 알아보려고 곡식 섬을 실는 달구지 입을 거들다가 안채를 엿보았다. 과연 어린 아이가 새빨간 다홍치마저 고리를 입맞게 입은채 혼자 광복만한 웃을 높이 던지고 있었다.

그림·조향숙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비락처럼 단번에 지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살아 인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깨우며 깨어나 어떠한 고통도 변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넘어 서멀다, 깨달음의 방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피곤 무리하게 살아가는 모든 활력파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한부 432면 | 5,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밝아보였다!
나는 허상의 웃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심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매무매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종교가 무성할 법구경이라는 말을 완전히 알아 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깨달음의 세계를 향한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대부터의 신화로 돌아간다. 스승의 말을 통해 흘러오는 깨달음의 언어, 법구경의 비유를 풀고 깨달음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성의 깊이를 우리는 알도한다.

법구경 (상·하)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 112 가지 명상방법 무작위 위해 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영혼만이 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아가는지라는 고민이 없이 살아가는 무지한 무신앙에 빠진 채로 깨어나는 과정과 영감의 대도에서 어떤 깨어났는지!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나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한역본!

탄트라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희 옮김
전4권 / 각권 6,500원

살을 논하는 영혼의 생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르면 진정한 자아라고 지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생명의 가장 귀중한 것은 지혜 율리가 바로 진(眞)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나므로 비로소 당신은 초인(超人)입니다. (超人)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날은 몸과 마음을 부처의 몸으로 초월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지게 그 몸이 되어갈 것입니다.

임제 (Rinzai)
조주 (Joshu)
마조 (Matzu)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3권 / 각권 5,000원

라이프스타일 잡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736 (444) 927-2831 팩스 924-3236